

계간

현대시사상

POETRY & THOUGHT

라깡·푸코·데리다

여름 1990년

- 시 이유경·박의상·하재봉·원재길
조원규·김창겸·이만근
- 해외시 가르시아 로르카
번역 및 해설·김춘진
- 기획 라깡·푸코·데리다
김형호·라깡의 반인간주의
김인환·라깡의 언어와 무의식
E.T. 배넷·푸코의 반인간주의
윤호병·데리다의 반인간주의
이동하·198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한 양상
서성록·한국 회화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 논문 감태준론
김재홍·소외 또는 인간회복의 꿈
- 서평 최동호·박상천

現代詩 思想

인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 주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실천의 세계는 인간이 아니라 언어적 체계에 의해 지탱되며 인간은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의 자리로 간주된다. 인간이 사회·역사적 주체라고 믿는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수용되는 이 시대의 지적 풍토에서 시도하는 인간 개념 비판론 「반인간주의」, 구조주의자들로 알려진 라캉·푸코·데리다의 사상으로 읽어본다.

행진곡 외 4편

김창겸

연필이 행진한다
白紙에서 破紙까지
五千의 決死隊를 이끌고
아주 평이한 문장으로
혹은 아주 난해한 문장으로
당신의 밋밋한 대뇌에 페퍼보그를 쓰며
M16을 난사하며
당신의 돌도 없는 血肉을 만나기 위해
사랑하는 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기 위해
탁자 위의 달걀 속으로
아마존의 밀림 속으로
休戰線 철조망을 끊으며
보드카를 마시며
카드섹션을 벌이며
만국기를 필력이며
칼 루이스보다 더 빨리
彗星보다 광폭스럽게
국회 속기록에 낙서를 하며
TV 화면에 커튼을 드리우며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털며

위조지폐를 찍어내며
라스콜리니코프와 어깨를 맞대고
갠지스강에서 니카라과까지
아크로폴리스에서 망월동까지
공수특전단을 앞세워
주사위를 던지며
리듬체조를 하며
당신의 레인코트 속으로
당신의 머리칼 속으로
끊임없이 안부를 물으며
끊임없이 용암을 분출하며
오르기즘을 느낄 때까지
피임에 상관없이
연필이 행진한다
氷山처럼 행진한다

絶對感覺

바람이 분다 바다는
마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는 마른다 조금씩
광대뼈가 석순처럼 솟아오른다
바람이 바다를 마르게 한다
태양마저 숨진 바닷가
진홍의 어둠 속에서 오직
바람만이 바다를 갉아먹는다
바다는 고통에 신음한다

파란 피를 흘리며 경련한다
 바람의 무게에 못 견디어
 바다는 드디어 쿵 하고 쓰러진다
 구토하며 쓰러진다
 바람이 분다 바다는
 마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는 마른다 조금씩
 질식해가는 해저의 밑바닥엔
 어느새 앙상한 뼈만 남는다
 마른 바다의 해저 속에
 투명한 뼈만 남는다
 바람에 그을린 투명한 뼈만 남는다
 보이지 않는 뼈를 뚫고 지나가는
 어디선가 들려 오는 하아프 소리!
 맑은 하아프 소리……

스탠드빠 입구에서

그대는 서 있다
 流動하는 관객들 속에서
 비트 있는 네온사인의 불빛 받으며
 不動의 자세로
 그대는 못박혀 있다
 극단의 희극배우처럼
 뼈에로처럼
 그대는 또 웃는다
 표정없이 웃는다

四角의 검은 입방체 위에
 기름때 흐르는 街道 위에
 까아만 눈썹 人造 코 달린 빨테안경
 빨간 면장갑에 신사모자 없어 쓰고
 그대는 組立되어 있다
 아교처럼 굳어 있다
 들끓는 차량들의 굉음 속
 아황산 가스의 독기 마시며
 그대의 주인을 대신하여
 뼈아의 간판이 되어
 살아 있는 彫像이 되어
 商品처럼 전시되어 있다
 채플린보다도 코믹하게
 산다는 것의 힘겨움과 슬픔을
 온몸으로 광고하면서
 오색 전구불이 번쩍이는 갑옷 속에
 수백 수천의 눈알들을 스틱으로 내리치며
 그대는 서 있다
 人形처럼 서 있다

파전

난 자유롭다

자유의 굴레를 벗어난 난
 자유롭다 거주지가 서울인 난
 유리창을 깨고 도망쳤지만

